

민태원의 『레 미제라블』 번역 연구

— 일본어 기점 텍스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경애*

< Abstract >

A study on the "Les Miserables" translation by Min Tae-won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purpose and methods of translation, and transformation of narrative structure by verifying the translational root of Min, Tae-Won's Aesa (Sad History) which is a translation of Les Miserables, and also comparing it with its source text. In the results of comparing Aesa (Sad History) by Min, Tae-Won with the Japanese translation by Kuroiwa Ruiko as its source text, in the methods of translation, both translators showed the hybrid aspect like domesticating translation of some names of characters and places. Regarding the transformation of narrative structure, just as the purpose of translation shown in the preface, Kuroiwa Ruiko not only rapidly developed a condensed story focusing on Jean Valjean and main characters for 'fun', but also realized the 'social criticism' in the text while Min, Tae-Won focused on the delivery of story by deleting or adding some contents from the Japanese translation by Kuroiwa Ruiko. Such methods of translation and transformation of narrative structure by Min, Tae-Won might be because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en it was tough to show the social/political criticism, which was the political background of forced ruling with severe control over publication.

Field : Other Japanese Studies

Keywords : Les Miserables, Japanese-Korean translation, Kuroiwa Ruiko, Meiji, Min Tae-won

1. 머리말

한국에서 『레 미제라블』은 최남선에 의해 1910년과 1914년에 각각 「歷史小說 ABC契」와 「너참불상타」라는 제목으로 번역¹⁾된 이래, 민태원에 의해 1918-1919년에 「哀史」라는 제목으로, 홍난파에 의해 1922년과 1923년에 『哀史』와 『잔열잔의설음』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서구문헌 번역의 태동기이자 급격한 전환기이기도 했던 근대 한국에서는 원본이 아니라 일본어 번역본을 기점 텍스트로 번역하면서 다양한 변용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레 미제라블』은 1895년부터 1910년까지의 개화기와 1910년대의 무단통치기, 1920년대의 문화통치기라는 시기를 관통하며 근대 한국어 번역본으로서는 드물게 여러 차례 번역되어 시기별 번역의 특징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시기의 번역 연구는 번역가와 번역 방법, 매체, 시대적 배경과 관련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고 일본어 번역본과 한국어 번역본의 텍스트 비교를

* 영남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일본어통번역

1) 근대 한국어 번역본의 대부분은 원본이 아니라 일본어 번역본을 한국어로 번역한 이중번역이거나 원본-영어 번역본-일본어 번역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한 삼중번역이 대부분이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기점 텍스트를 이중 또는 삼중 번역한 중역의 방법으로 번역이 되었으나 일본을 경유한 번역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사용할 때 외에는 '중역' 대신 '번역'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통한 구체적인 변용 양상의 규명과 같은 번역학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²⁾. 번역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기점 텍스트가 목표 텍스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변용의 양상이다. 특히 서구의 문화와 문학 형식의 도입과 더불어, 혹은 그것을 선도하며 애국, 계몽적 목적에서 시작된 한국 근대 번역에서는 번역을 둘러싼 시대적 배경과 그에 따른 번역 목적, 번역 방법에 따라 특징적 변용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 비교를 통한 변용 양상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10년대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활동한 대표적 번역가인 민태원의 『레 미제라블』 번역본 「哀史」와 그 기점 텍스트인 일본어 번역본과의 텍스트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근대 번역의 태동기인 개화기를 거쳐 1920년대 기점 텍스트 중시의 현대적 번역이 나타나기까지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는 1910년대 번역의 한 양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민태원의 「哀史」와 그 기점 텍스트인 구로이와 루이코의 『哀史』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영어 번역본과 빅토르 위고의 프랑스어 원본도 검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목표 텍스트인 한국어 번역본이 서양 원본의 직접 번역이 아니라 일본을 경유한 중역이고 일본어 번역본 또한 프랑스어 원본이 아니라 영어 번역본을 기점 텍스트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변용이 이루어진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번역본뿐만 아니라 영어 번역본과 프랑스어 원본까지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 비교, 분석에서는 먼저 서문 분석을 통해 번역 목적을, 고유명사 분석을 통해 번역 방법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서사구조 분석을 통해 변용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레 미제라블』이라는 하나의 텍스트가 영어 번역과 일본어 번역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 그 번역 목적과 방법, 변용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哀史」의 기점 텍스트

2.1 『레 미제라블』 번역의 경로

본 연구의 대상이자 영화와 뮤지컬 등으로도 유명한 『레 미제라블』은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 1802-1885)가 1845년부터 1861년까지 집필한 소설로 5부 48편 364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서사를 담고 있다. 빅토르 위고가 그의 생애 가장 정력적으로 집필 활동을 했던 망명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 『레 미제라블』이 탄생했다. 1848년 정치적인 이유로 잠시 작업을 중단하고 1851년 망명지로 원고를 가져가 1860년에 다시 집필을 시작해 1861년 6월 30일 완성했다. 1862년 『레 미제라블』 초판이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동시에 출간되었을 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고 출간과 동시에 영국은 물론 미국의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 출판되었다³⁾.

최초로 출판된 영어 번역본은 1862년 뉴욕의 George Carleton이 간행한 다섯 권짜리 찰스 윌보어(Charles E. Wilbour)의 번역본과 런던의 Hurst and Blackett이 간행한 세 권짜리 레셀레스 락셀(Frederic Charles Lascelles Wraxall)의 번역본이다. 위고는 영어 번역 판권을 런던의 Hurst and Blackett에 팔았고 이 출판사는 세 권짜리로 완역하여 1862년 출판하였다. 영국의 영역서는 윌보어의 다섯 번째 즉 마지막 권이 출판되기 바로 직전에 출판되었다. 정식으로 판권을 사들여 출판한 것은 영국의 출판사이지만 다섯 부로 구성된 열 권

2) 최남선, 민태원, 홍난파 등 번역가에 대한 연구로 김옥동(2009), 권문경(2009), 박진영(2011)의 연구, 신문관과 『매일신보』 등의 매체에 대한 연구로 권두연(2009), 이희정(2007)의 연구, 개화기와 1910년대 번역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연구로 정선태(2003), 박옥수(2008) 등의 연구가 있다.

3) Hoffheimer(2013) p.164

짜리 프랑스어 초판 원본을 다섯 권으로 편성한 미국의 영역본이 수십만 권의 판매고를 올리며 대 성공을 거두었다. 영국에서 출판된 영역본은 출판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법⁴⁾의 엄격한 시행으로 인해 책값은 매우 비쌌고 번역의 질은 매우 낮은 것으로 비난받으며 미국에서만 성공하지 못했다. 영국의 번역자인 랙설은 역자 서문에서 프랑스어 원본에서 매우 사소한 부분을 생략하여 번역했다고 자신의 생략 사실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위고의 열 권 중 한 권이 통째로 삭제되거나 중요한 두 장이 삭제되고 여러 장의 부분 부분이 생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영국에서 『레 미제라블』의 배타적 저작권을 소유한 Hurst and Blackett사에 경쟁상대는 없었기 때문에 오역을 수정하거나 보충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1874년에 저렴하면서도 훌륭하게 번역된 윌보어의 번역본이 영국에서도 판매되기 시작하자 Hurst and Blackett은 저작권 기한이 만료되기까지 5년이 남아 있었지만 완역본의 출판을 중단했다⁵⁾.

1885년 위고가 사망하자 국제적으로 그의 저작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났다. Carleton은 1885, 1886, 1887년에 잇달아 『레 미제라블』의 새로운 판을 내놓았고 크게 성공하였다. 그리고 윌보어의 번역본 외에도 뉴욕의 Thomas Y. Crowell 출판사가 다섯 권으로 출판한 이사벨 햅굿(Isabel F. Hapgood)의 번역본, George Routledge and Sons 출판사가 1862년에 출판된 랙설의 번역본을 보충하여 다섯 권으로 새롭게 구성한 번역본, 보스톤의 Little, Brown and Company가 랙설의 번역을 기초로 자신들이 수정한 다섯 권짜리 번역본 등이 새롭게 출판되었다. 이 외에도 1880년대 중반 이후 각종 시리즈와 전집류에 포함되어 축약본이 출판되었으며 20세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윌보어, 랙설, 햅굿의 번역본이 판을 거듭하고 구성을 달리하며 계속 출판되었다⁶⁾.

일본의 근대 번역가들은 미국의 영역본을 기점 텍스트로 번역하였지만 근대 일본과 빅토르 위고의 첫 만남은 당시 민권운동가인 자유당 총리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가 위고를 방문하면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당시 위고는 이타가키와 만나 구미의 정치론과 소설류를 일본의 신문지상에 번역, 게재하라는 충고를 하였다고 한다. 메이지 15년(1882) 연말부터 다음해 4월 하순까지 이타가키는 파리에 체재하였고 이 사이에 위고와의 회견이 실현되었다고 한다⁷⁾.

일본에서 메이지와 다이쇼 시기에만 『레 미제라블』은 27건 이상 일본어로 번역되어 왕성했던 당시 일본의 번역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⁸⁾. 이 시기 일본어 번역본에는 기점 텍스트를 적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메이지 시대에 『레 미제라블』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모두 영일 번역자라는 점에서 영어 번역본을 기점 텍스트로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이쇼 시기에 들어와 불문학자 도요시마 요시오(豊島興志雄)가 1918-1919년에 번역한 4권짜리 『レ・ミゼラブル』가 최초로 프랑스어 원본으로 완역을 시도한 일본어 『레 미제라블』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일본어 번역자가 원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지만 1915년 영어 번역본을 기점 텍스트로 『레 미제라블』을 완역한 도가와 슈코쓰(戸川秋骨)는 서문에서 「ヴキル

4) 1710년 영국 의회에서 통과된 최초의 저작권법인 일명 앤여왕법(the Statute of Anne)은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법이라기보다 출판업자의 배타적인 출판권(copy right)을 보장해주는 법이었다. 단 14년간의 비교적 짧은 기한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출판업자들은 유명 저자의 저작권을 비싸게 사들인 후 짧은 기간 이윤을 얻기 위해 비싼 값에 책을 판매하였다(Lessig, 2004, p.86). 앤여왕법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1886년 체결된 국제적 저작권 보호 협약인 베른협약의 기초가 되었다. 일본은 1899년에 베른협약에 가입하였고 미국은 1989년, 한국은 1996년에 가입하였다.

5) Hoffheimer(2013) pp.175-179

6) Hoffheimer(2012) pp.272-273

7) 稲垣直樹(2009) pp.207-208

8) 屋木瑞穂(1999), 梁艶(2010), 田熊渭津子(1989), 일본국립국회도서관(日本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http://dl.ndl.go.jp/>) 조사로 필자가 작성한 메이지(明治, 1868-1912)와 다이쇼(大正, 1912-1926) 시대의 일본어 『레 미제라블』 번역본 목록은 <부록1>과 같다.

ボア」와 「ハップグ우드」의 서사 구조 그리고 프랑스어 원문을 참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ヴキルボア」는 미국에서 최초로 『레 미제라블』을 번역한 찰스 윌보어(Charles E. Wilbour)이며 「ハップグ우드」는 1887년부터 미국에서 『레 미제라블』을 번역한 이사벨 햅굿(Isabel F. Hapgood)을 말한다.

일본에서 번역된 『레 미제라블』은 1900년대와 1910년대에 일본유학을 경험한 최남선, 민태원, 홍난파에 의해 잇달아 번역되었다. 한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레 미제라블』인 최남선의 「歷史小説 ABC契」는 하라 호이쓰안(原抱一庵)이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잡지 『소년원(少年園)』에 연재한 뒤 내용을 크게 수정하여 1902년 단행본으로 출간한 『ABC組合』을 충실하게 번역한 것으로 『레 미제라블』의 내용 중 ‘ABC의 벳’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파리봉기의 원인과 전개과정만을 다룬 것이다. 그 후 1914년 최남선이 다시 번역한 「너참볼상타」는 『레 미제라블』의 내용 중 장발장을 중심으로 매우 짧게 축약하여 번역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구로이와 루이코(黒岩涙香)가 『요로즈초호(萬朝報)』에 연재한 「噫無情」을 기점 텍스트로 추정하고 있으나 내용이 지나치게 축약되어 있어 확인할 수는 없다. 구로이와 루이코(黒岩涙香)의 「噫無情」은 『레 미제라블』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번역한 이전의 번역과 달리 전체 내용을 축약하여 번역한 것이다. 민태원이 한국어로 번역한 「哀史」가 구로이와 루이코(黒岩涙香)의 「噫無情」을 완역한 것으로 근대의 『레 미제라블』 번역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태원의 한국어 번역은 일본어 번역본과 같은 15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고의 텍스트 비교 분석 결과 일본어 기점 텍스트의 내용이 축소되거나 생략되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는 등 적지 않은 변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1922년에 홍난파⁹⁾는 『레 미제라블』을 번역한 단행본 「哀史」와 이듬해 이를 순국문체로 바꾼 『한양춘의실음』을 발표하였다. 김병철(1975)의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홍난파의 「哀史」는 구로이와 루이코가 번역한 「噫無情」의 내용을 대폭 축약하여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홍난파의 「哀史」가 출판된 1922년 이전의 일본어 『레 미제라블』 번역본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쿠다 슈세이(徳田秋声)의 「哀史」를 단락의 구분까지 동일하게 충실히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¹⁰⁾.

최남선부터 홍난파까지 다섯 편의 『레 미제라블』은 모두 일본어 번역본을 기점 텍스트로 삼아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1925년에 이르러서야 영문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천원 오천석에 의해 일본어 번역본이 아닌 영문 번역본을 기점 텍스트로 『레 미제라블』 번역이 이루어졌다.

2.2 민태원 「哀史」의 기점 텍스트

민태원 「哀史」의 기점 텍스트가 구로이와 루이코의 「噫無情」이라는 것은 김병철(1975)의 연구를 통해 일찍이 밝혀진 바 있다. 구로이와 루이코는 「噫無情」의 서문에서 모두 네 종류의 『레 미제라블』 영역본을 가지고 있으며 미리엘 주교가 먼저 나오는 것과 주인공 장발장이 먼저 나오는 것 중에서 재미를 위해 장발장이 먼저 나오는 것을 번역했다고 밝히고 있다. 구로이와 루이코가 『레 미제라블』을 번역한 1902년 이전에 영어로 번역된 『레 미제라블』은 미국에서 1862년 출간된 찰스 윌보어의 번역본, 영국에서 1862년 출간된 랙설의 번역본, 미국의 New York T.Y. Crowell 출판사에서 1887년 출간한 이사벨 햅굿의 번역본이 프랑스어 원본을 완역한 영역본이다. 그리고 New York Hurst & Co.에서 1880년대 중반에 번역, 출판된 것으로 추정되는 Henry Llewellyn Williams(이하 헨리)의 『레 미제라블』이 유일하게 원본의 구성과 달리

9) 민태원은 자신의 번역 작품에 번역자 이름으로 호를 사용하여 ‘민우보’라 하였고 홍난파는 본명을 사용하여 번역자 이름을 ‘홍영후’라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관련 연구에서 민태원과 홍영후의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쓰이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민태원’과 ‘홍난파’를 사용하기로 한다.

10) 윤경애(2018) pp.101-113

미리엘 주교의 이야기가 아닌 장발장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영어 번역본이다. 구로이와 루이코는 장발장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는 헨리의 영어 번역본을 기점 텍스트로 하여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로 먼저 지명의 표기를 들 수 있다.

M. MYRIEL

En 1815, M. Charles-François-Bienvenu Myriel était évêque de D. — C'était un vieillard d'environ soixante-quinze ans; il occupait le siège de D. — depuis 1806.

Quoique ce détail ne touche en aucune manière au fond même de ce que nous avons à raconter, il n'est peut-être pas inutile, ne fût-ce que pour être exact en tout, d'indiquer ici les bruits et les propos qui avaient couru sur son compte au moment où il était arrivé dans le diocèse. Vrai ou faux, ce qu'on dit des hommes tient souvent

BOOK FIRST. — A JUST MAN.

I. — M. MYRIEL.

In 1815, M. Charles-François-Bienvenu Myriel was Bishop of D. He was an old man of about seventy-five years of age; he had occupied the see of D. since 1806.

Although this detail has no connection whatever with the real substance of what we are about to relate, it will not be superfluous, if merely for the sake of exactness in all points, to mention here the various rumors and remarks which had been in circulation about him from the very moment when he arrived in the diocese. True or false, that which is said of men often assumes as important a place in their lives, and above all.

<그림1> 프랑스어 원본과 월보어 영어 번역본의 첫 페이지

<그림1>에서 1862년의 프랑스어 원본 초판에서 위고는 미리엘 주교가 살고 있는 지명을 'D' 라는 이니셜로만 표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월보어, 랙설, 햅굿의 영어 번역본 모두 지명을 이니셜로만 표기하였다. 빅토르 위고는 1862년 초판을 출판한 이후 1881년에 수정판을 출판했는데 이니셜로 되어있던 지명의 철자를 풀네임으로 바꾸는 정도의 약간의 수정만 하였다(Hoffheimer, 2013, p.168). 본 연구의 서지 조사에서 1900년 이전의 영역본에서 수정본의 바뀐 지명에 따라 번역한 것은 <그림2>에서 알 수 있듯이 헨리의 영어 번역본이 유일하다. 이전의 영어 번역본에서 'D'로만 표기되어 있던 지명이 'Digne'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JUST MAN AND BISHOP.

At this period Charles François Bienvenu Myriel was the Bishop of Digne.

He was a man of seventy-five who had filled the see of Digne since 1806.

True or false, what is said of men takes more place in their life and particularly their destiny than what they do.

Myriel was son of a counsellor to the Aix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legal nobility. Reserving him to inherit his business, his father married him early, at twenty or less, to

<그림2> Henry L. Williams의 영어 번역본 14쪽

헨리의 영역본 표제지에는 출판사와 번역자만 기재되어 있고 출판 연도는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다. 헨리의 『레 미제라블』은 뉴욕 Hurst & Co. 출판사의 COSMOS 시리즈 가운데 한 권으로 번역된 것인데 출판 연도를 추정하기 위해 같은 시리즈 책들의 표제지와 서문을 조사한 결과 Bacon's essays의 서문에 연도가 1883년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¹¹⁾.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헨리의 『레 미제라블』 영역

11) 일본어 번역본의 영어 기점 텍스트는 미국의 HathiTrust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조사하였다. HathiTrust Digital Library는 2008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Committee on Institutional Cooperation(현재의 Big Ten Academic Alliance)에 소속된 13개 대학에 의해 창설되었다. 현재 HathiTrust의 참여 도서관은 120여개 이상의 미국 내 주요 대학 및 기관의 도서관들이며 참여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정보 및 저작권 소멸 장서의 디지털화된 원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Google, the Internet Archive, Microsoft 등에 의해 디지털화된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자료가 저장된 리포지터리(repository)의 관리는 인디애나 대학교 미시간 대학이 맡고 있다. 필자는 HathiTrust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1900년 이전에 출판된 『레 미제라블』의

본도 1883년을 전후하여 위고의 1881년 수정본을 번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로이와 루이코가 헨리의 영어 번역본을 기점 텍스트로 삼았을 것이라는 두 번째 근거는 번역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a] This man had dashed into the flames and at peril of his life saved two children of the captain of the police

(헨리, p. 76)

[1-b] 彼れは煙の中から二人の兒供を抱て出た。其の兒供が丁度警察長官の子で有ツたので、

(구로이와, 前, p. 56)

[1-c] This man had rushed into the flames and had saved, at the risk of his own life, two children who belonged to the captain of the gendarmerie

(헵굿, vol. 1, p. 152)

프랑스어 원문의 ‘gendarmerie’을 ‘police’로 영역한 번역자는 헨리가 유일하며 월보어, 랙설, 헵굿 모두 ‘gendarmerie’로 표기하였다. 월보어와 헵굿의 영역본을 기점 텍스트로 번역한 도가와 슈코쓰 등은 ‘gendarmerie’를 「憲兵の隊長」로 번역하였다. 구로이와 루이코의 『레 미제라블』 번역본이 헨리 윌리엄의 번역본보다 훨씬 더 축약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사 구조, 번역어 등으로 미루어 헨리 윌리엄의 영어 번역본을 구로이와 루이코 번역본의 기점 텍스트로 볼 수 있다.

3. 「哀史」의 서문 분석

번역자인 민태원이 기자생활을 시작했던 시기는 한일병합 이후의 무단통치기로,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을 공포한 이튿날부터 『대한매일신보』의 제호 가운데 ‘대한’ 두 글자를 떼어내고 『매일신보』라는 제호로 바꾸어 총독부 기관지로 만들었다. 이 신문은 일제의 입장을 대변하여 ‘日鮮 융화’와 ‘世道人心의 감화유도’라는 원칙에서 제작되었고 편집의 방향은 ‘내선일체’라는 침략의 논리를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정진석, 1995). 이와 같이 일제의 어용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매일신보』에서 사회비판적 성격이 강한 『레 미제라블』이 어떻게 번역, 연재될 수 있었는지 민태원 번역본의 기점 텍스트인 구로이와 루이코의 일본어 번역본 서문을 통해 번역 목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로이와 루이코는 서문(小引)에서 빅토르 위고를 소개하고 『레 미제라블』의 내용과 쓰인 시기, 프랑스어 ‘레 미제라블’의 의미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어 번역본만 해도 네 종류가 되고 이것들을 비교해 보니 미리엘 주교의 이야기가 처음에 오는 것과 장발장의 이야기가 처음에 오는 것 두 종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로이와는 그 차이를 위고가 미리엘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여겨 권두에 두었으나 만년에 이르러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뒤편으로 옮기고 장발장의 이야기를 앞에 둔 것으로 추측하였다. 위고의 프랑스어 초판 『레 미제라블』의 구성과 수정본의 구성을 알 수 없는 구로이와 루이코로서는 영역본

영어 번역본을 검색하여 900여권의 목차, 본문 일부의 유사도를 비교한 결과 유사한 구성, 번역어의 특징에서 구로이와 루이코(黒岩涙香) 『憶無情』의 영어 기점 텍스트가 헨리 윌리엄즈(Henry L. Williams)의 번역본이라고 추정하였다.

의 구성이 프랑스어 원본의 구성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구로이와는 신문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후자의 순서가 재미있을 것이라 믿어 장발장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영역본을 번역한다고 밝혔다. 즉 구로이와 루이코가 번역에서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재미’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噫無情』의 서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문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2] 余の小説は所謂新聞小説にして、純文学上の価値を期するものにあらず、多数の俗人を教へんと欲するものにして、少数の識者に読まれんと欲するものにあらず¹²⁾

[2]에서 구로이와는 자신의 소설이 순문학이 아니며 신문소설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미’를 위해 기점 텍스트를 중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초역(抄譯)하는 구로이와의 번역에 대해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번역에 대한 비난에 루이코는 [3]과 같이 단언하고 있다.

[3] 之を訳すと云ふは極めて不当なれど訳に非ずと云はば又剽窃の譏り模倣の嫌ひを免れず依て強て訳と云ふなり、不当と云はば云へ僭越と譏らば譏れ、余は翻譯者を似て自認する物にあらざるなり¹³⁾

이러한 구로이와의 입장에 분개하는 사람들은 구로이와의 번역을 「奔訳」¹⁴⁾라고 야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흥미거리만 팔리고 순문학이 부진한 것을 개탄하는 문인도 있었다. 하지만 구로이와 루이코의 번역물은 하나의 장르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러한 성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소유한 ‘신문’이라는 매체가 있었기 때문이다¹⁵⁾. 이와 같이 자신의 번역에서 오락성을 중시하는 구로이와 루이코는 자신의 『레 미제라블』 번역본인 『噫無情』의 서문에서 번역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먼저 헨리가 영역한 위고의 서문과 구로이와 루이코가 번역한 서문을 비교하면 [4]와 같다.

[4-a] As long as under present laws and manners social condemnation artificially creates hells in full civilization and complicates divine destinies with human fatality, as long as three problems of the age are not solved, namely, man's degradation by the ill-adjusted labor question, woman's ruin through hunger, and children's wasting away through want of tuition, so long as mental asphyxiation is somewhere possible: in other words, and from a wider view, as long as the world cherishes poverty and ignorance, books of this kind cannot be useless (헨리, preface)

[4-b] 法律と習慣とを名として、社會の呵責が此文明の眞中に人工の地獄を作り、人の天賦の宿命をば人爲の不運を以て妨ぐることの有る限りは

12) 鴻巣友季子(2005) p.57

13) 鴻巣友季子(2005) p.62

“이것을 번역이라 하면 매우 부당하겠지만 번역이라 하지 않으면 또 표절이나 모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부득이 번역이라 하고자 한다. 부당하다고 말하려면 말하라 주체념다고 비난하려면 비난하라, 나는 자신이 번역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필자 역)

14) 「奔訳」는 번역을 뜻하는 일본어 「翻訳」와 발음이 ‘혼야쿠’로 같다. 하지만 한자‘奔’은 남녀의 부적절한 성관계나 음란함을 뜻한다. 구로이와 루이코의 상업적인 번역물이나 번역 방법을 비난하기 위해 동음이의어를 사용한 언어유희이다.

15) 鴻巣友季子(2005) p.64

現世の三大問題、即ち勞働世界の組織不完全なるに因する男子の墮落、饑渴に因する女子の滅倫、養育の不足の爲の兒童の衰殘、を救ふの方法未だ解釋せられざる限りは

心の饑渴の爲に衰死する者社會の或部分に存する限りは以上を約言して廣き見解に従ひ、世界が貧苦と無學とを作り出す限りは

則ち此種の書は必要無きこと能はざる也

(구로이와, 小引)

[4-b]와 같이 구로이와 루이코는 위고의 『레 미제라블』 서문을 번역하여 소개한 뒤 [5]에서는 위고의 서문과 동일한 문체로 자신의 번역 목적을 밝혔다.

[5] 若し我が日本に『レ、ミゼラブル』の一書を翻譯する必要ありとせば、必ずや人力を以て社會に地獄を作り、男子は勞働の爲に健康を損し、女子は饑渴の爲に徳操を失し、到る處に無智と貧苦との災害を存する今の時にこそ在るなれ、唯だ余がユーゴー其人に非ざるを悲しむ可しとす

(구로이와, 小引)

위고가 프랑스에 노동문제로 고통받는 남자와 기아로 몸을 파는 여자와 버림받은 아이들이 없다면 『레 미제라블』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작 목적을 밝혔다면, 구로이와 루이코는 일본에서 노동으로 건강을 잃은 남자와 기아로 정조를 잃은 여자와 모든 곳에 무지와 빈곤이라는 재해가 존재하는 지금의 일본이야말로 위고의 번역이 필요한 때라고 그 번역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번역 방법에서 재미를 추구하여 서사 구조를 변용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상당히 사회 비판적인 번역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일본어 번역본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온전히 번역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민태원의 「哀史」는 신문에 연재소설 형식으로 게재되면서 ‘세계덕 대결작이 『매일신보』에 연재되어 소개됨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신문사의 광고가 실리기는 하였지만 번역자 자신의 서문이나 번역 목적 등이 따로 제시된 적은 없다. 따라서 민태원의 번역 목적은 5장의 서사구조 변용 분석에서 첨가되고 삭제된 부분의 분석을 통해 유추해 보고자 한다.

4. 「哀史」의 고유명사 번역 실태

먼저 인명의 번역에서, 구로이와 루이코의 『噫無情』에 등장하는 인명은 모두 40건이며 민태원의 「哀史」에 등장하는 인명은 36건이다¹⁶⁾. 민태원이 일부 내용과 인명을 삭제하여 번역했기 때문에 등장인물 수가 적다. 민태원의 인명 가운데 ‘차보란’은 구로이와 루이코의 『噫無情』에는 등장하지 않는 에피소드의 주인공으로 첨가된 인물이다.

구로이와는 작품 속 주요 등장인물의 이름을 한자로 번역하여 표기하였는데 모두 25건으로 약 62%이다. 민태원은 구로이와의 한자 인명 중에서 한 건을 제외한 22건의 인명을 한국어 한자 인명으로 번역하였고 한글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구로이와 루이코가 가타카나로 음차 번역하여 표기한 이름은 모두 15건으로 약 38%이다. 민태원은 구로이와가 번역한 15건의 가타카나 인명 중에서 세 건은 생략하고 7건을 가타카나 발음을 따라 음차 번역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한국식 한자 이름으로 번역하였다. 구로이와 루이코가 한자를 이용하여 번역한 등장인물은 「奈翁」 「厖歷山」 「路易十八世」와 같이 역사적으로 이미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거나 신화 속 인물인 「天津乙女」를 제외하면 모두 소설 속 주요 등장인물이다. 주요 등장인물에 대해

16) <부록2> 민태원의 인명 번역 참조

구로이와 루이코가 한자를 이용하여 이름을 번역한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한자에 후리가나를 붙여 기점 언어의 발음을 표기하는 음차 번역 방법이다. 「장발장(戒瓦戒)」, 「미리엘(彌里耳)」, 「나폴레옹(奈翁)」 등의 이름 번역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일본인 이름처럼 보이지만 기점 언어의 발음과 유사한 한자어를 이용해 음차 번역하는 방법이다. 「마다라이(斑井)」, 「자묘타(蛇兵太)」, 「테나르다(手鳴田)」, 「모리야스(本田守安)」는 기점 언어의 발음과 유사하게 음차 번역되었다.

세 번째로 한자어로 의역하는 방법이다. 기점 언어의 발음과 유사하지는 않지만 인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한자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보코(疣子)」와 「아자코(瘰子)」는 코제트를 볼모로 광틴을 죽임에 이르게 할 정도로 괴롭힌 악당 테나르다에의 두 딸이다. 두 딸도 제 부모와 같이 코제트를 몹시 괴롭히는 인물로 나오는데 구로이와 루이코는 이들에게 반점이나 멍을 의미하는 한자 「瘰」와 사마귀라는 의미의 한자 「疣」를 붙여 명명하였다. 반면에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광틴은 「하나코(華子)」로 번역하였으며 「우마주로(馬十郎)」로 번역한 상마치우는 마차를 모는 일을 한다. 이와 같은 번역은 모두 12건이다.

구로이와 루이코의 인명 번역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는 방법은 세 번째의 한자 의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음독과 훈독을 섞어 발음하면 원문의 발음과 유사해지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코제트’의 번역어인 「고유키(小雪)」는 구로이와 루이코가 한자어 옆에 후리가나로 「고유키(こゆき)」라고 적어 놓았다. 하지만 「小」를 ‘코’라고 훈독하고 「雪」을 ‘세쓰’로 음독하면 「고세쓰」로 발음된다. 붙여 및 영어 기점 텍스트의 인명인 「코제트」와 매우 유사하게 발음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점 언어의 발음을 숨겨놓는 인명 번역은 우연이 아니라 구로이와가 밝히지 않은 자신만의 유희적인 번역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 방법은 구로이와의 다른 번역본인 「鉄仮面」(萬朝報, 1892.12.22-1893.6.22)의 인명 번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보아고베(Fortuné du Boisgobey)가 쓴 『철가면』의 등장인물 ‘필립’을 구로이와 루이코는 「도리이 다쓰오(鳥居立夫)」로 번역하였다. 여기서도 ‘다쓰오’와 같은 일본식 이름으로 번역하였지만 「다쓰오(立夫)」를 음독하면 「립프(リップ)」로 발음되고 바로 앞의 「居」를 훈독으로 읽으면 「이립프(イリップ)」가 된다. 이 방법은 민태원이 구로이와의 「鉄仮面」을 번역한 「무쇠탈」(매일신보, 1918.7.28-1919.2.8)에서 「방다(姪陀)」를 「方月姫」로 번역한 방법과 같다. 「月」을 음독하여 「방월회」로 읽지만 훈독으로는 「달」이 되어 「방달」이라는 이름을 내포하게 된다¹⁷⁾. 이와 같이 민태원은 「무쇠탈」의 인명 번역에서 단순히 조선식 이름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구로이와 루이코의 인명 번역 방법을 참고하여 번역하였지만 「哀史」의 번역에서는 「홍만슈」, 「홍만서」, 「마침지」와 같이 친숙한 한국의 이름으로 번역하였다.

지명 번역에서 구로이와 루이코의 「臆無情」에는 모두 41건의 지명이 등장하며 이 가운데 한자로 번역하여 표기한 것은 10건으로 약 24%이다¹⁸⁾. 구로이와 루이코가 한자로 번역한 지명은 모두 나라 이름과 대도시의 이름이다. 민태원은 구로이와 루이코가 한자로 번역한 지명 중에서 7건을 생략하였고 「문화리」, 「부리촌」 등 보다 한국적으로 지명을 번역하였다. 인명 번역에서 40%만을 가타카나로 음차 번역한 구로이와는 지명 번역에서는 국명과 대도시 이름 일부를 제외한 31건, 76%를 음차 번역하여 가타카나로 표기하였다. 민태원도 인명 번역에서는 약 19%만을 음차 번역하였지만 지명 번역에서는 80%를 음차 번역하였다.

이와 같은 일관되지 않은 인명과 지명의 번역 방법은 결국 ‘위털루’ 전쟁에서 ‘홍만수’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문화리’가 있으며 파리 시내에서 떨어진 시위에서 ‘마침지’가 ‘공화정지’만

17)全美星(2014) p. 23

18) <부록3> 민태원의 지명 번역 참조

세'를 외치게 만들었다. 권두연(2009)은 번역의 공간 안에 개입한 번안의 형식들은 소설의 공간을 조선의 독자에게 근접시킴으로써 독서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번역 방법은 가독성을 고려한, 독자를 배려한 번역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번역 방법에 대한 번역자들의 깊은 논의와 일관된 원칙을 찾아볼 수 없는 1910년대 번역의 한 단면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哀史」의 서사구조 변용

민태원의 「애사」와 그 기점 텍스트의 서사구조 변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레 미제라블』 원본의 서사를 분절하여 구조화하였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은 1부 8편 70장, 2부 8편 76장, 3부 8편 76장, 4부 15편 75장, 5부 9편 67장 등 총 5부 48편 36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본은 수많은 인물들이 다양한 사건을 만들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19개 사건을 중심으로 서사를 분절하였다. <표1>에서 19개 각각의 사건에 ①-⑱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1> 빅토르 위고 『레 미제라블』의 서사구조

목차	번호	내 용
1부	1편 ①	1815: 장발장과 미리엘 주교가 만나던 해, 미리엘은 1806년부터 다인의 주교로 부임하고 있었음 1793: 미리엘 주교의 과거 1804, 1806-1815: 미리엘 주교의 선행에 관한 일화들
	2편 ②	1815: 장발장은 감옥에서 나와 마을에서 수모를 겪지만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음 1795: 장발장이 감옥에 가게 된 사연 1815: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의 은접시를 훔치지만 도리어 은촛대까지 받고 개과천선
	3-4편 ③	1817-1818: 남자에게 버림받고 미혼모가 된 팡틴.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테나르디에의 여관에 코제트를 맡김
	5편 ④	1815-1823: 사업가로 성공하고 자선을 베풀다 시장이 된 장발장. 장발장을 의심하는 자베르. 장발장의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당하고 창녀로 추락한 팡틴을 장발장이 구출
	6-8편 ⑤	1823: 장발장으로 오인받은 죄인이 체포되자 가명으로 시장이 된 진짜 장발장은 고심 끝에 재판장에서 자백. 자베르에게 체포되고 팡틴 사망
2부	1편 ⑥	1815: 워털루 전쟁의 전개와 그곳에서 마리우스의 아버지가 테나르디에의 의도치 않은 도움을 받게 된 사연
	2-3편 ⑦	1823: 장발장 탈출, 코제트 구출
	4-8편 ⑧	1823: 자베르의 추격을 피해 수녀원에서 은거생활

3부	1편	⑨	1830년대: 파리의 어린이들이 처한 현실과 테나르디에의 아들 가브로슈의 거리 생활
	2-3편	⑩	1815: 마리우스의 출생과 성장 1828: 마리우스 아버지의 죽음. 마리우스는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외조부와 갈등 끝에 가출
	4편	⑪	1828 전후: 마리우스가 가입한 ‘ABC의 벳’ 조직과 조직원, 당시 프랑스의 정치정세
	5-6편	⑫	1828-1831: 마리우스의 빈궁한 생활. 코제트는 5년간의 수녀원 은거를 끝내고 밖에서 생활하던 중 마리우스와 우연히 만난 뒤 다시 잠적
	7-8편	⑬	1832: 장발장은 테나르디에 일당에 의해 위협에 빠지지만 도리어 테나르디에 일당이 자베르에게 체포
4부	1편	⑭	1831-1832: 혁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던 당시 프랑스의 정치정세, 혁명을 준비하는 움직임
	2-9편	⑮	1832: 테나르디에의 딸 에포닌의 도움으로 다시 코제트를 만난 마리우스. 외조부에게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하자 죽을 결심으로 혁명에 참가
	10-15편	⑯	1832: 혁명의 발발과 전개. 바리케이트 안에서 혁명군의 저항
5부	1편	⑰	1832: 장발장이 마리우스를 구하기 위해 바리케이트 안으로 들어옴. 바리케이트 안에 잠입했다 붙잡힌 자베르를 장발장이 풀어줌. 바리케이트는 함락되고 ABC조직원 대부분 사망
	2-4편	⑱	1832: 하수도를 통해 마리우스를 구출한 장발장. 하수도 밖에서 자베르를 만나지만 자베르는 마리우스와 장발장을 집에 데려다준 후 자살
	5-9편	⑲	1832-1833: 코제트와 결혼한 마리우스는 장발장을 오해하고 있었으나 불순한 목적으로 찾아온 테나르디에에 의해 오히려 장발장의 선행을 알게 되고 사과하러 가지만 장발장 사망

구로이와 루이코와 민태원의 번역본에서 연재 횟수는 152회로 일치하지만 목차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 첫째, 민태원이 구로이와 루이코 번역본의 한 장 분량을 두세 장으로 나누거나 혹은 일본어 번역본의 두세 장 분량을 한 장으로 합쳐 연재했기 때문이다. 구로이와 루이코의 번역에서 한 장당 내용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반면 민태원의 경우 한 장당 비교적 일정한 길이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민태원은 구로이와 루이코의 번역본 외에 도가와 슈코쓰(戸川秋骨)의 『哀史』를 참고하여 번역하였고 자신의 감상을 첨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구로이와 루이코의 번역본에서 문장과 문단 단위로 내용을 생략하기도 하였다. 구로이와 루이코의 번역본에서 일부 내용을 생략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였기 때문에 장당 길이가 구로이와의 일본어 번역본과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민태원의 『哀史』와 그 기점 텍스트들의 서사구조를 비교하면 <그림3>과 같다.

위고	헨리	구로이와	민태원
1부 ①	1장	1-3장	1-3장 -
②	2-3장	4장	4-5장 첨가
③	3-5장	5-11장	5-13장 첨가
④	6-7장	12-13장	14-16장 삭제, 첨가
⑤	8-11장	14-22장	17-25장 삭제, 첨가
2부 ⑥	12-20장	23-42장	26-46장 삭제
⑦	21-23장	43장	47장 -
⑧	24장	44-57장	48-61장 삭제, 첨가
3부 ⑨	25-30장	58-69장	62-73장 삭제, 첨가
⑩	31-44장	70-73장	74-77장 -
⑪	45-48장	74장	77장 -
⑫	49장	75-82장	77-82장 삭제, 첨가
⑬	50-53장	83-102장	82-101장 -
⑭	54-67장	103-116장	101-114장 -
4부 ⑮	68-69장	117-125장	115-124장 삭제
⑯	70-86장	126-133장	125-132장 -
5부 ⑰	86-92장	134-141장	133-140장 -
⑱	92-96장	141-152장	140-152장 삭제
⑲	96-102장		
⑳	103-115장		

<그림3> 위고의 원작(불어)에 대한 헨리(영어), 구로이와(일본어), 민태원(한국어)의 서사구조 비교

<그림3>과 같이 헨리 윌리엄즈는 원본에서 사건⑭를 생략하여 번역하였다. 사건⑭는 혁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던 당시 프랑스의 정치정세와 혁명을 준비하는 민중들의 움직임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헨리의 영역본을 일본어로 번역한 구로이와는 원본의 사건⑨에 해당하는 가브로슈의 이야기를 번역하지 않았다. 테나르디에의 아들인 가브로슈의 거리생활 뿐만이 아니라 파리의 어린이들이 처한 당시의 상황을 매우 길게 서술한 부분이다. 결국 구로이와의 일본어 번역본에는 사건⑨와 ⑭가 생략되었고 한국어 번역본에서도 같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전체 서사 구조에서 헨리 윌리엄즈는 『레 미제라블』 원본의 사건②에 해당하는 장발장의 첫 등장 장면인 1부 2편 1장 「하루 내 걸은 날 저녁」의 내용을 거의 생략하지 않고 자신의 영어 번역본 1장에 위치시킨 후 미리엘 주교에 관한 내용인 사건①을 2-3장에 축약하여 번역한 뒤 미리엘 주교와 장발장의 만남을 3장에 이어놓았다. 이와 같은 특징적인 서사구조의 변용은 구로이와 루이코의 일본어 번역에 그대로 이어졌다. 헨리 윌리엄즈의 1장 내용을 구로이와 루이코는 1-3장에 걸쳐 생략 없이 일본어로 번역했고 이는 민태원의 한국어 번역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구로이와 루이코는 『레 미제라블』의 주요 등장인물인 장발장, 미리엘, 팡틴, 코제트, 마리우스, 테나르디에 각각에 대한 묘사를 헨리의 영역본에서 간략하게 축약하고 대신 전체 서사 구조를 장발장을 중심으로 짜임새 있게 재구성하여 독자가 스토리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였다. 또한 빅토르 위고가 『레 미제라블』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사회의 문제에 대한 비판 또한 등장인물들의 비참한 상황 속에 적절히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구로이와 루이코는 기점 텍스트인 영역본의 대부분의 장을 짧게 축약하였으나 사건②에 해당하는 1장, 사건⑤에 해당하는 12-20장, 사건⑬에 해당하는 54-67장의 내용은 거의 생략하지 않고 자세히 번역하였다. 사건②는 장발장이 출옥한 뒤 미리엘 주교가 있는 다인 시에 도착해서 겪는 고초를 묘사한 부분이다. 전과자라는 이유로 여관과 민가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개집에서조차 쫓겨난 비참함을 묘사한 부분이다. 사건⑤는 장발장이라고 오인 받은 무고한 사람이 체포된 것을 알게 된 장발장이 자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뇌하는 장면이고 사건⑬은 악당 테나르디에가 장발장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그를 유

인하고 고문하는 장면이다. 프랑스어 원본의 방대한 서사나 장발장을 중심으로 축약한 영어 번역본에서도 사건 ②, ⑤, ⑬의 내용은 결코 두드러지게 긴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구로이와 루이코의 일본어 번역본에서 사건 ⑤와 ⑬은 무려 스무 장에 걸쳐 영어 번역본의 내용을 거의 생략하지 않은 채 번역되었다. 장발장이 겪는 수모, 장발장이 선과 악의 기로에서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를 하는 모습과 그것의 극복, 테나르디에의 순수한 악인으로서의 모습과 장발장의 강건함에 구로이와 루이코가 중점을 두고 번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민태원은 구로이와 루이코가 생략한 등장인물들에 대한 묘사와 에피소드, 자신의 감상을 도가와 슈코쓰 번역본을 참고하여 첨가하는 대신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구로이와 루이코가 사건의 전개과정 속에서 인물이 보여주는 행동과 대사로 인물의 감정과 특징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민태원은 전지적 시점에서 인물의 특징을 묘사한 부분을 도가와와의 번역을 참고하여 첨가하거나 인물이 느낄만한 감정을 자신이 설명하거나 과장하는 방식으로 첨가하였다. <그림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문장과 문단 단위로 부분적인 삭제와 첨가가 이루어졌지만 특히 장발장이 느끼는 비참한 감정에 대해서는 작가 자신의 창작이, 미리엘 주교와 팡틴과 관련해서는 도가와 슈코쓰의 번역을 참고한 첨가가 이루어졌다. 결국 전체 서사 구조와 분량은 일본어 번역본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도 일본어 번역본과 한국어 번역본은 다른 관점과 내용의 『레 미제라블』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어 번역본과 한국어 번역본의 텍스트 비교를 통해 한국어 번역본에 첨가된 내용과 삭제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1 첨가

5.1.1 도가와 슈코쓰의 번역본에서 첨가

도가와 슈코쓰(戸川秋骨)는 1915년 일본에서 최초로 『레 미제라블』을 완역하였고 이후 도요시마 요시오(豊島與志雄)가 1918년부터 1919년까지 4권의 『레 미제라블』 완역본을 출간하였다. 도가와 슈코쓰 이전의 『레 미제라블』 번역은 모두 부분 번역이거나 요약 번역이었다. 따라서 1918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민태원이 구로이와 루이코의 번역본 외에 참고할 수 있는 일본어 번역본은 도가와 슈코쓰의 번역본 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민태원이 도가와 슈코쓰의 번역본을 참고로 했다는 것은 번역어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구로이와 루이코 번역본의 기점 텍스트인 헨리의 영어 번역본과 구로이와의 일본어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6-a] This man had dashed into the flames and at peril of his life saved two children of the captain of the police (헨리, p. 76)

[6-b] 彼は煙の中から二人の児供を抱て出た。其の児供が丁度警察長官の子で有つたので、 (구로이와, 前, p. 56)

프랑스어 원본에서 ‘gendarmerie’로 표기된 단어를 헨리 윌리엄은 ‘police’로, 구로이와는 ‘경찰’로 번역했다. 도가와 슈코쓰가 서문에서 참고했다고 밝힌 월보어와 햅긔의 영어 번역본, 도가와 슈코쓰의 일본어 번역본, 민태원의 한국어 번역본에서 동일한 부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6-c] This man had rushed into the flames and had saved, at the risk of his own life, two children who belonged to the captain of the gendarmerie (햅긔, vol. 1, p. 152)

[6-d] This man rushed into the fire and saved, at the peril of his life two children, who proved to be those of the captain of the gendarmerie (월보어, vol. 1, p. 162)

[6-e] その時此の人は燃える焔の中に飛び込み、自分の生命をかけて、憲兵の隊長の二人の小供を救ひ出した、
(도가와, 上, p. 309)

[6-f] 그책이사람은 타오르는 불속에뛰여드러가 목숨을앗기지안코 헌병디당의 아들형대를 살너넌였다
(민태원, 17장)

‘gendarmerie’는 프랑스에서 국경 수비와 치안 업무까지 맡은 헌병대를 뜻하는 프랑스어로 햅굿과 월보어는 프랑스어 ‘gendarmerie’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영어 번역본에 옮겼고 도가와 슈코쓰의 번역을 참고한 민태원이 ‘경찰대장’이 아닌 ‘헌병디당’으로 번역한 것이다. 민태원이 단어 수준에서까지 도가와 슈코쓰의 번역을 참고한 흔적은 [7]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a] Les deux premiers fonctionnaires de l'État, c'est la nourrice et le maître d'école
(위고, vol. 2, p. 45)

[7-b] The two prime functionaries of the state are the nurse and the schoolmaster
(햅굿, vol. 1, pp. 277-278)

[7-c] The two highest functionaries of the state are the nurse and the school-master
(월보어, vol. 1, p. 164)

[7-d] The two foremost servants of the country are the nurse and the schoolmaster
(헨리, p. 78)

[7-e] 國家の中で、最高至上の職務と云ふのは、國務大臣で無い、病院の看護婦と、學校の教師だ
(구로이와, 前, p. 56)

[7-f] 國家の首腦たるべき仕事をする二個のものは嫗姆と學校の教師とである
(도가와, 上, p. 312)

[7-g] 이세상에서 데일큰일을 하는사람은 유치원의보모와 학교의교사라고한다 (민태원, 17장)

프랑스어에서 ‘nourrice’는 ‘젖먹이는 어머니, 유모, 보모’를 의미한다. 영어의 ‘nurse’는 보통 간호사로 해석되지만 ‘유모, 보모’의 뜻도 있으므로 영어 번역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다. [7]의 문장 이후로 마텔라인이 당시 프랑스에서도 대중적이지 않았던 시설인 유치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보모’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구로이와 루이코는 ‘nurse’를 간호사로 번역하였고 도가와 슈코쓰는 보모로 번역하였다. 민태원은 구로이와 루이코의 번역이 아니라 도가와 슈코쓰의 번역을 따라서 유치원의 보모라고 번역하였다. 이후 이어지는 유치원 설립의 내용을 참고로 보모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민태원은 서사 구조의 경우 구로이와 루이코의 『憶無情』을 따랐지만 단어 수준에서까지 도가와 슈코쓰의 『哀史』와 꼼꼼히 비교하여 구로이와 루이코의 오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도가와 슈코쓰의 번역어를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

민태원이 문장이나 문단 수준에서 도가와 슈코쓰의 번역을 참고하여 첨가한 부분은 미리엘 주교, 장발장, 팡틴, 테나르디에 등 주요 등장인물과 관련된 에피소드나 상황으로, 구로이와의 번역본보다 자세히 드러내고 있다.

[8-a] 時に依つて僧正は穩かな嘲弄を試みたが、其の内にはいつも痛切な意味がかくれて居た...중략... 若い住職がD-の市に來て禮拜堂で説教をした。住職は可なりの雄辯でその説教の題は慈善といふのであつた。富者をすゝめて地獄を避け、極樂を得るやうに貧者に施すべきを説き、出来る限り極めて恐ろしく地獄の光景を描き極樂を以て楽しき快き處としてこれを示した。處が聴衆の内に金持で隱居して居る商人があつた、高利貸の類で、名をジェボランと呼び、太物や、毛織の細紐の製造をして二百萬の金を貯えたのであるが此のジェボラン氏は一生中未だ嘗て貧民に布施をした事はなかつたのである。さて此の説教のあつた後氏は日曜日毎に禮拜堂の戸口に居る貧乏な乞食の年寄の女達に一錢丈けやるやうになつた。然るに乞食は六人居るので一錢の金はその六人で分けるのである、或る日僧正はこの慈善の金を與へて居る處をチラと見て、微笑を洩らして妹の老婦人に言ふには「御覽、ジェボラン氏は一錢で極樂を買つて居るよ」

(도가와, 上, p. 21)

[8-b] 혹엇던적에는 남을점잔케 도롱호는일이잇는디그말속에는언제던지 김흔뜻이잇더라 한번은 엇던젊은목사가 그곳레비당에서 설교를호는디 그목사는말씀시도케 부자능가난흔사람을 만히 구제호여야 텃당을가지 그릿치안으먼디옥에를간다고 말호고 디옥의무서운광경과 텃당의즐거운모양을 눈압헤보논듯이 설명호앗다 그런디그날설교를 듯던사람중에 차보란이라는 부자능은이가잇섯다 이능은이는 고리대금으로 돈을만히모앗스나 평칭에노랑전 한푼이라도남을주어본일업더니 그뒤로 브터는 주일날마다 레비당문압헤잇는거지능은이들에게 돈일전씩을 주게되앗다 그런디돈은일전이고 거지는 여섯사람인고로 그돈으로무엇을사서 여섯사람이 나누어갓게된다 어느날승경은 차보란의돈주는모양을보고 빙긋이우스면서 그미씨부인에게 「저것보게 차보란씨는일전으로 텃당을사네」 참뜻김흔도몽일다 세상사람중에는 텃당을완홍정호는사람도만코 명예를 미득으로 사라고호는 사람도만이나그갓치미련호고 그갓치 ^어늘는것은업다

(민태원 3장)

[8]의 인용문은 미리엘 주교를 묘사한 3장 중에서 구로이와 루이코가 삭제한 ‘체보랑’과 관련된 미리엘 주교의 에피소드이다. 구로이와의 번역본에서 미리엘 주교에 대한 묘사가 매우 짧고 압축적인 반면 민태원은 새로운 에피소드를 첨가하여 이후 장발장에게 미리엘 주교가 베푼 선행의 개인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9-a] 「ジェルヴェの子ッジェルヴェの子ッ」と呼んだ、がその聲は實に聞くにたえないほどな尤も恐ろしくまた尤も不安な聲であつた。正しく小供はその聲を聞いたにしても恐れて出ては來なかつたであらう。併し言ふまでもなく小供はすでに遠くに行つて仕まつて居つたのであつた。

(도가와, 上, p. 21)

[9-b] 「子供よう、子供よう」と叫んだ。延上ツて四^{あたり}邊を見廻した。子供は居ぬ。最う去てから時が立ツた。

(구로이와, 前, p. 44)

[9-c] 「이이야 이이야」 부르는소리^는 식기일은사자의우름갓치 구슬^{호고}무서웁다 정말그아히가그씩씩지 잇섯터티도 그소리를듯고^는도망을호엿을 것이다

(민태원 13장)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은접시를 훔쳤음에도 도리어 은촛대까지 받고 나온 뒤 어린 아이가 떨어뜨린 은전을 밟아 의도하지 않게 빼앗은 셈이 된 장발장이 되게 이을 깨닫고 아이를 찾는 장면이다. 지금껏 세상을 원망만 하던 자신의 과거를 일시에 참회하고 갱생하는 계기가 되는 장면인 만큼 아이를 부르는 장발장의 심정을 민태원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0-a] 千八百二十年にはラフィット銀行に自分の名で六十三萬フランの金高を預けて居たさうである。併し此の六十三萬フランを貯蓄した前に、市のため貧民の為に百萬フラン以上を費やしたさうである。 (도가와, 上, p. 311)

[10-b] 五年目には銀行への預金が六十萬法以上も溜ツた。 (구로이와, 前, p. 56)

[10-c] 잊히만에 자기가 룽십만푸랑을 저금했는디 그저금을 하기전에 남을위하여 기부헌돈은 빅만푸 랑도 넘었섯다 (민태원, 17장)

헌병대장의 아이를 구해준 덕에 신분을 세탁하고 사업가로 성공한 장발장은 거액의 재산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자선 사업에 그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였다. 구로이와가 단지 라피트 은행에 저금한 재산만을 번역한 반면 민태원은 자선사업에 쓴 재산까지 도가와 슈코쓰의 번역을 참고하여 번역하였다.

[11-a] 旅客は少し加減をして身の上を話した。女の旅客は工女であつて、夫は死んで居た、それからパリで仕事がなくなつたので、何處か他所で仕事を見付けやうとして今故郷に歸つて行く處で、...중략...母は確と抱いて居たに拘はらず、走らうとして小さい小供の抑へ難き力を出して地上に滑り下りた。小供は忽ち鞦韆に乗つて居る二人の小供に目をつけ、一寸立ち止まつて感じ入つたやうに口を開けた...중략...それ位の年の小供はすぐに親しくなるもので一分時も経たない内に、二人の小テナルヂエは此新來の小供と一處に穴を開けて遊んで居たが、...중략... 「貴女の子の名は何といふの」「コセツつて云ひます」...중략... 「幾歳です」「直きに三歳になります」「それでは宅の總領と同じですよ」...중략... 「小供は眞實に直ぐ仲のよくなるものネ、まるで三人姉妹のやうですワ」此の一言は恐らく一方の母が待ち設けて居た一條の火花であつた、此の母はテナルヂエの手を取つて凝つとその顔を見つめて言つた— 「貴女私の為目にその子を預つて居て下さいませんか」 (도가와, 上, pp. 293-295)

[11-b] 女同士^{なち}の昵むも早く、早や^{ふたり}両女は身の上などを問ひ合ひ語り合ふ程と為たが、華子は茲が我兒を預く可き天の指示す所であると思ふた。茲を過しては又と此様な所の有らう筈が無い。暫しの間い思案を定め、言出す可き言葉の折を待て「何うでせう、私しの小兒を預つてお育て下さる事は出来ますまいか」 (구로이와, 前, p. 51-52)

[11-c] 잠시동안이라도 피차에순익어져서이런이야키저런이야키를다히게되였다 황이련은 자기논파리에가서 너외살님을히다가 남편은죽고 홀일은업서々 지금고향으로도러가는길이라고 이야키를 히였다 이갓치 이야키를 하는동안에 설도는것을다먹고 제절로홀너 내려가주인아히들이 노논업흐로 아장아장 거러갔다 원릭이런속업논 아히들은 금방이라도 동모가되논법이라 얼마만이되여 세아히들은 서로 정답게 쌍파기작란을히며 놀고잇섯다 「아기일홈이 무엇이어요」 「설도랍니다 성은고가가요」 「몇살이어요」 「세살입니다」 「세살이면우리큰딸과 동갑이로구면.... 이그저것좀보셔요 엇저면그동안에 저러케정다워것갈요 아조삼형테라고히었스면 도켓네」 황이련은 실상이말이 나오기를 기다린세음 일다 이말잇더러지자 톱날쉴마누라의 손길을잡고 그얼굴을 뽀그름이쳐다보며 「여보셔요 저히를좀 맞히길너주실슈 업겟슴닛가」 (민태원 15장)

구로이와 루이코의 번역본에서 광틴이 코제트를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맡기는 장면은 지나치게 짧게 축약되어 있어서 마치 아이를 유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민태원은 광틴이 테나르디에의 두 딸과 코제트가

어울리는 모습, 딸들을 대하는 테나르디에 아내의 태도를 보고 코제트를 맡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2-a] 一方ではコセットの母が出て行つた時、亭主は女房に向つて言つた「此れで明日拂はなければならん百十フランの金が出來た。丁度五十フラン丈け不足であつ他のだが、お前知るまいが危く執達吏を向けられ支拂命令をさしつけられる處であつたに、お前が甘く小供で鼠おとしをかけたので助かつた」「そんな事は知らずにサネ」と女は答へた。(도가와, 上, p. 298)

[12-b] 틱낄쥬의니외는 고설도의 모친이나간뒤에 이러흔슈작을혓였다 「인제릭일빗갑홀돈이 다드러섯다
ㅅㅅㅅㅅㅅㅅ면 집힝을맛낄것을 자네가ㅇ히들을가지고 귀똥을 잘낏키썸문에 무사ㅎ게되엿네」 「나
는 그런줄도모르고 ㅅㅅㅅㅅㅅㅅ면 노쳐보닐번ㅎ엿지」 ㅎ고 마누라는대답을혓였다 (민태원 5장)

구로이와 루이코의 번역에서는 팡틴이 울며 떠나는 장면까지만 번역하였다. 테나르디에 부부가 실은 매우 악인들이며 계획적으로 팡틴을 뒤통에 빠뜨렸다는 부분까지 민태원은 도가와 슈코쓰의 번역을 참조하여 첨가하였다.

5.1.2 민태원 자신의 감상 첨가

전체 서사 구조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문장 중간중간 민태원은 자신의 감상이나 느낌, 견해를 첨가하였다.

[13-a] 町を外れて少し行くと横手に丘が有り丘には樹も茂て居る如く暗く見える。彼れは其の方を望だが身震ひした (구로이와, 前, p. 10)

[13-b] 동리밧글썈져나서 사면을돌너본즉 하늘에는검정구름이답히고 들밧게는면산이검정장막갓치돌니여
모든경치가무섭고 슬흐고 업허누르는것갓치보인다 그는이러흔경치를바라보고 한참섯다가 진절이
를치고도러섯다 (민태원 3장)

원본은 물론이고 모든 번역본에서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유지하며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설명하고 있다. 구로이와 루이코가 영어 번역본에 서술되어 있는 것 이외에 등장인물이 느꼈음직한 감정을 자신이 창작하여 첨가하지 않은데 비해 민태원은 [13-b]의 인용문과 같이 등장인물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창작하여 첨가하였다. 민태원은 장발장이 마을의 여관과 민가에서 숙박을 거절당한 후 들판에 나와 느꼈을 서글픔과 무서운 감정을 보다 자세히 서술하였다.

[14-a] 全く此旅人は、其筋から銘を打たれて居る通り「油斷の為らぬ奴」である、眞に恐る可き人間である。燈光の前に立た其顔の凄さ、其姿の恐ろしさ、老女も僧正の妹御も我知らず逃やうとする如く立上ツた。(구로이와, 前, p. 16)

[14-b] 바로무서운독갑이른 맛는것갓다 로파는소리를지를 경황도업서벌렷겻기만ㅎ고 승정의미씨는 그사
름의얼굴을 쳐다보고 캄작노낏스나 간신히가슴을진딩ㅎ고 그오라버니의 눈치만본다
(민태원, 5장)

[14-b]의 예문에서는 문장의 삭제와 첨가가 동시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태원은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의 모습을 단지 조심해야 할 자나 무서운 사람으로 번역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15-a] 「ア、己は獵師だ、親の代から山の物を採て正直に食て居るのだ、此様な、重い仕置に遭ふ様な、悪人では無い」と云ひ、頓て泣き止むと手を差し延べ、宛も背丈の揃つて居ぬ七人の子供の頭を撫でる様に段々と其手を低くし、口の中で何やら呟いて居たので、扱は子供に未練が残つて居るのかと、牢番の慣れた眼には察せられたとの事であるされば戎は入獄の後も、罪に合はせて自分の罰が重過るとの念が絶えず、
(구로이와, 前, p. 28)

[15-b] 「아- 아는산양군이다 우리조상적부터 산김싱이나잡어먹고 아모죄업시 사라오는사람이다 이런증벌을당할 악인이안이다」 하고울더니 울음을스친뒤에는팔을빼더서 맞치고만く흔 일곱아히들의 머리를 시다듬는모양으로 차々손을나리며 입안으로무슨소리를 중절く음기느고로 저사람은 아히들을몰니져 저러하나보다고 간수의눈에는 짐작이났섯다한다
참장팔찬의말이올타 산중에서사려서 김싱이나 잡어먹는사람은아모리감찰이업시 몰니산양을한다홀지라도 도회처에서 사람을죽이는놈과갓치 괴악히지는 안은것이다 도회디에서는 사람의마음을씩이느식답으로 참제반약장을 다가진악인이 싱기느것이나 산중에서 사는사람은 쫘々하고무식은홀지라도 인정은이저바리지 안이한다 이사람역시 그러흔사람이다 산중에서 비운것도업시잘나서 무무하고 무식히기느하나 그성질은악인이안이다 싸려서 무식흔소견에도 자기가지은죄보다 자기당흔형벌이 너무중하다는싱각은 날것이다

(민태원, 9장)

[15-b]의 예문에서 민태원은 장발장이 빵을 훔친 죄에 더해 허가받지 않은 사냥총을 소지한 죄로 과중한 형벌을 받은 것을 변호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민태원은 종종 신파극을 연상시킬 정도로 다소 구구절절이 장발장의 처지나 감정을 서술하고 있다. 구로이와 루이코가 건조한 문체에 빠른 서사 전개로 사건의 긴박함이나 등장인물의 감정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반면 민태원은 등장인물의 감정에 이입하거나 번역자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비록 소설의 내용이 그러한 감정들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기점 텍스트에 존재하지 않는 어휘와 문장을 첨가함으로써 번역자의 감상이 번역 대상을 앞지르게 되면 독자는 이미 번역자에 의해 번역된 감상을 접하게 됨으로써 감정을 통제받게 된다. 이와 같은 번역에 대해 권두연(2009, pp.128-130)은 ‘위안의 문학’이라고 평가하였다. 민태원이 『레 미제라블』을 번역한 무단통치기에 『매일신보』는 「쌍옥루」나 「장한몽」 같은 일본 가정소설의 변안 작품을 중심으로 눈물과 비애의 감상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통속화의 현저한 증장 현상”(임규찬, 한진일 편, 1993, pp.297-299)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5.2 삭제

[16-a] 彼は走つて外に出た。爾して家の前に在た小さい臺の上に腰を卸し、獨り首を垂れて呻吟き初めた。此時の辛さは他人に想像する事が出来ぬ。彼は唯だ胸を撫でゝ居る。果ては茫乎として自分で自分を知らぬ様な狀とは成つた。此とき彼れの居る所から幾間か離れた所で、不意の消魂しい物音がした。彼れは驚いて首を上げた。見ると一人の小僧が、街燈に石を投げて其の硝子を碎き落したのだ。小僧は物識顔に吼いて居る「吾々革命黨が旗を揚げて居るのに、市民が現政府のに街燈に照らされて居るとは怪しからん。昔から革命の時には一番掛に街燈を毀した者だ」戎は乞食の小僧が、食うに困つての悪戯だらうと思った。彼れは何の様な場合でも涙が有る。直に衣囊から五法の銀貨一枚を取出して小僧の前に差出た。小僧は此様大きな銀貨を初めて見た。殆ど我れ知らずの様に受取つて、戎の住居の窓から差す燈光に熟々と眺めたが

忽ち氣が付き「イヤ吾黨は賄賂は受けぬ」とて返さうとした、戎「お前には阿母が有るだらう」小僧「有るとも」戎「では阿母に旨い物でも買って喰させるが好い」小僧「幾度賄賂を呉れたとて、町の硝燈を毀さずには居れ無い。此様な時に腹癒せねば」戎「硝燈は幾等でも毀すが好い」小僧「オ、伯父さんは話せるなア、其れでは貰つて置かう」と云て直に去り掛けたが「オ、嬉しさに用事を忘れては大變だ。伯父さんお前は此町の七番地を知て居るかえ」七番地は戎の家だ。戎は忽ち氣が附た「己は先ほどから手紙を待て居るのだが、お前が其の使では無いのか」(구로이와, 後, pp. 154-155)

- [16-b] 그는 다름질을 하여서 문밖그로나가다가 문턱에거러안져서 고기를숙이고 쫑々알기시작하였다그는 이와갓치 홀노고싱을하다가필경은 정신을노왔는듯 마침이적에 장팔찬의억기를 흔들々々흔들면서 「여보령감 여보령감」 하고부르는사람이잇섯다 째작놀나고기를들고본즉 그는십여세가량쭙된 어린 아히일다 그아히는장팔찬을보고 「여보로인여기 칠번디가어디세요」 칠번디는 바로자기집이라 장 팔찬은별안간싱각이언득나서 「네가편지를가지고왔나니강까부터기다리느중이다」 넘겨집흔수작일 바로드라마졌다 「이편지는 식약씨한테가는편지인데요」 장팔찬은 더욱짐작이나섯다 「니가고설도 양의 심바름으로기다리고있다」 (민태원 124장)

사회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빅토르 위고의 원작에서 악당 테나르디에 부부의 아들 가브로슈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다. 위고가 서문에서 밝힌 ‘노동 문제, 여성 문제, 아동 문제’에서 가브로슈는 당시 프랑스의 아동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인물이다. 부모에게 버림받다시피 했지만 거리를 집 삼아 씩씩하게 생활하고 부모와 달리 착한 심성을 지녔으며 어린 나이에도 파리 봉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급진적인 혁명가의 모습을 보여주기에까지 한다. 구로이와 루이코는 미리엘, 장발장, 자베르, 팡틴, 코제트, 마리우스, 테나르디에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엮어 나가지만 마리우스와 팡틴의 연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가브로슈에 대한 묘사를 짧게나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민태원은 어린아이가 정부 전복의 노래를 부르며 가로등을 깨부수는 부분을 생략하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삭제와 변용은 [17]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7-a] 女學生でさへ墮落する、況んや女工に於てをやだ。嘆か^{いづ}はしい次第では有るけれど若い男女の身に過ちや悪事の有るは、孰^{いづ}れの國、何れの時にも、仕方の無い事と見える。とは云へ一つは社會の仕組^{かつ}も悪いのだ。可哀想に、貧と云ふ奴が若い身空の者を驅て、墮落せざるを得ぬ様な境涯に立たせるのだ。イヤ沈ませるのだ。(구로이와, 前, p. 46)

- [17-b] 녀학칭도 난봉이나거든 더구나녀직공들이야 말홀것잇스라 청년남녀가 몸을버리는것은 참가엿슨일이지만은 이세상이 벌릴수밧게업시만드느것을 엿지하나 그중에는 정말제가잘못하여서 신세를밧추는사람도잇지만은 대개는홀수업서 난봉이나느것이다 가난과열골고흔것은 난봉을만드느 두중밧가 되는것이니 가난은뒤에서 등을밀어 난봉구덩이로 드리미는셈이요 고흔열을은압해서서 알날々々^쓰여드리느 셈이라 의업분녀자의 약혼^쓰마음이 이두가지중밧를밧나면 엿지되는줄을모르고 난봉구덩이에 빠져마리느것이다 (민태원 14장)

팡틴이 혼전 임신을 하게 된 이유로 구로이와는 젊은이의 실수와 가난을 꼽고 있다. 젊은이의 실수야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니 어쩔 수 없지만 사회가 잘못되면 가난이 젊은이를 나락으로 떨어뜨린다고 사회 비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민태원도 가난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일본어 번역본이나 도가와 슈코쓰의

번역본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인 여자의 예쁜 외모를 원인으로 들며 타락의 원인을 여자의 외모와 약한 마음 탓으로 돌리고 있다. 장발장이 한겨울 일거리가 없어 어린 조카들과 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치게 된 것, 그를 그 정도의 가난으로 몰아넣은 것까지는 ‘사회의 죄’로 비판이 가능하지만 여성이 몸을 망치고 어린아이가 혁명가가 될 정도로 사회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은 민태원의 번역에서 삭제되었다.

구로이와 루이코가 『레 미제라블』에서 가져온 이야기는 장발장을 중심으로 자베르, 테나르디에, 팡틴, 코제트, 마리우스가 만들어가는 갈등을 중심으로 한다. 먼저 장발장과 자베르 간의 갈등은 장발장과 테나르디에가 만드는 갈등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범죄자 장발장과 냉정한 자베르는 애초에 자신이 책임져야 할 ‘원죄’가 없다. 위고는 장발장에게 ‘사회의 죄’ 즉 사회가 만들어낸 빈곤으로 인해 빵을 훔치게 되었고, 자베르에게는 범죄자의 자식으로 감옥에서 태어나 자신의 부모를 증오하게 되어 그 부모와 같은 범죄자를 냉정하게 단죄하는 것으로 ‘악’과 싸우게 되었다는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장발장이 사회를 원망하다 미리엘 주교를 만나 돌연 깨달음을 얻은 뒤 그토록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오직 선한 길만을 향해 고행하는 이유와 자베르의 자살이 설명된다. 그들은 처음부터 악한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나르디에는 다르다. 그는 처음 등장부터 악인이었고 자신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전혀 자각하지 않으며 개선과 반성의 여지가 조금도 없는 순수한 악의 결정체이다. 사회가 만든 악과 인간 자신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악, 두 가지 악에 맞서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싸우는 인물이 바로 장발장인 것이다. 구로이와 루이코는 다소 느슨하고 장황하게 전개되는 기점 텍스트의 내용 가운데 역사적 배경과 당시 파리의 상황, 주변 인물에 대한 긴 서술을 생략함으로써 이 두 가지 악을 놓치지 않고 사회 문제와 인간 내면의 갈등을 빠른 속도로 전개시켰다.

민태원의 경우 구로이와 루이코의 서사구조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적지 않은 첨가와 삭제를 하였다. 구로이와 루이코가 재미와 사회비판 양쪽에 번역 목적을 둔 데 비해 민태원은 재미를 위한 스토리의 전달에 번역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태원의 번역본에는 장발장의 비참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서 빈곤의 문제가 나타나 있을 뿐이며 장발장이 중심인 신파극과 코제트, 마리우스가 중심인 멜로드라마가 교차되며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번역 과정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생략은 그의 다른 번역본인

『무쇠탈』(동아일보, 1922.1.1-6.20) 번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구로이와 루이코의 『正史美歷 鉄仮面』을 충실히 번역한 『무쇠탈』에는 가장 앞부분인 구로이와의 서설1과 서설2가 통째로 생략되어 있다¹⁹⁾. 생략된 부분은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당시의 프랑스 역사, 즉 루이14세의 실정(失政)과 그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설명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全美星(2014, p.28)은 민태원이 작품의 전체적 재미를 위해 삭제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생략된 내용이 ‘정부 비판과 저항’의 『正史』라는 점에서 일제에 대한 비판과 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도적인 삭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哀史』에 나타난 사회비판의 삭제 또한 식민지 시기, 특히 무단통치기라는 정치적 상황과 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하는 『매일신보』의 지면이라는 것을 의식한 삭제라고 볼 수 있다.

19)全美星(2014) pp.22-27

6. 맺음말

이상과 같이 민태원의 「哀史」와 기점 텍스트인 구로이와 루이코의 일본어 번역본을 비교한 결과 번역 방법에서 두 번역자 모두 인명과 지명의 일부를 자국화하여 번역하는 혼종적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서사구조의 변용에서는 구로이와 루이코가 서문에서 밝힌 번역 목적대로 ‘재미’를 위해 장발장과 주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축약하여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면서도 ‘사회비판’을 놓치지 않고 텍스트 안에서 이를 모두 구현한 데 비해 민태원은 구로이와 루이코의 일본어 번역본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첨가하며 스토리의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변용 양상을 중심에 두고 텍스트 비교 분석에 치중한 탓에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문화소 비교 분석과 문체 분석 등은 이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하며, 민태원의 번역 과정에서 나타난 변용이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이나 문학 체계와 갖는 상관성에 대해 보다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두연(2009) 「신문관 단행본 소설과 신문에 운동」 『최남선 다시 읽기: 최남선으로 바라본 근대 한국학의 탄생』 현실문화 pp.101-137
- 권문경(2009) 「우보(牛步) 민태원(閔泰瑗)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철(1975)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을유문화사
- 김옥동(2009) 「번역가로서의 최남선」 『외국문학연구』 35 pp.49-68
- 민태원(1918, 7, 28 - 1919, 2, 8) 「哀史」 『每日申報』 4면
2018, 1, 22 인용: <http://e-gonghun.mpva.go.kr/user>
- 박옥수(2008) 「개화기 한국 번역 작품의 기술적, 기능적 분석」 『겨레어문학』 41 pp.483-513
- 박진영(2007) 「소설 번안의 다중성과 역사성-『레미제라블』을 위한 다섯 개의 열쇠」 『민족문학사연구』 33 pp.213-254
- 윤경애(2018) 「『레 미제라블』의 근대 한국어 번역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희정(2007) 「1920년대 초기의 『매일신보』와 흥난과 문학」 『어문학』 98 pp.239-268
- 임규찬, 한진일(편)(1993) 『林和 新文學史』 한길사
- 정선태(2003) 「근대계몽기의 번역론과 번역의 사상」 『배달말』 33 pp.93-114
- 정진석(1995) 『인물 한국언론사』 나남출판사
- 稲垣直樹(2009) 「ユゴーと日本」 『図説翻訳文学総合事典 第五巻』 大空社 pp.205-230
- 黒岩涙香(1906) 『噫無情』 (前, 後) 扶桑堂
2018, 1, 6 인용: <http://dl.ndl.go.jp/info:ndljp/pid/896594>
- 鴻巣友季子(2005) 『明治大正翻訳ワンダーランド』 新潮社
- 全美星(2014) 「翻案小説の「翻訳」戦略: 閔泰遠(ミン・テウォン)『鉄仮面』と黒岩涙香『正史実歴 鉄仮面』の比較を通して」 『文芸論叢』 82 pp.17-32
- 田熊渭津子(編)(1989) 「明治翻譯文學年表」 『明治翻譯文學集』 筑摩書房 pp.411-435
- 戸川秋骨(1915) 『哀史』 (上-下) 国民文庫刊行会
2018, 1, 13 인용: <http://dl.ndl.go.jp/info:ndljp/pid/950216>
- 屋木瑞徳(1999) 「樋口一葉 「琴の音」 に関する一考察: ヴィクトル・ユーゴー 『哀史』 との比較を通し

て」 『三重大学日本語学文学』 10 pp.107-121

梁艶. (2010). 原抱一庵訳 「ジャンバルジアン」 の底本について. *Comparatio*, 14, 27-36.

Bacon, F.(1883) Bacon's essays, New York: Hurst & Co.

Retrieved January, 20, 2018, from <https://catalog.hathitrust.org/Record/100213596>

Hoffheimer, M. H.(2012) Translations of Les Miserables for law libraries. *Leg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31(3-4) pp.270-285

Hoffheimer, M. H.(2013) Copyright, competition, and the first English-Language translations of Les Miserables (1862). *Marquett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iew* 17(2) pp.163-190

Hugo, Victor M.(1862) Les misérables (Vols. 1-10), Bruxelles: A. Lacroix, *Verboeckhoven*

Retrieved March 2, 2018, from <https://archive.org/details/lesmisrables186201hugo>

Hugo, Victor M.(1862) Les misérables (Vols. 1-5) (Charles E. Wilbour, Trans.), New York: Carleton (Original work published in 1862)

Retrieved February 3, 2018, from <https://catalog.hathitrust.org/Record/001212718>

Hugo, Victor M.(1887) Les misérables (Vols. 1-5) (Isabel F. Hapgood, Trans.), New York: T. Y. Crowell (Original work published in 1862)

Retrieved February 13, 2018. from <https://catalog.hathitrust.org/Record/009043292>

Hugo, Victor M.(n.d.) Les misérables (Henry L. Williams, Trans.), New York: Hurst & Co. (Original work published in 1862)

Retrieved February 20, 2018, from <https://catalog.hathitrust.org/Record/102087618>

Hugo, Victor M.(2013) 『레 미제라블』 (제1권-제5권) (정기수 역) 민음사

Lessig, L.(2004) Free culture, New York: The Penguin Press

< 要 旨 >

閔泰瑗の『レ・ミゼラブル』 翻訳研究

本研究の目的は閔泰瑗(ミン・テウオン)の『レ・ミゼラブル』翻訳である『哀史』(毎日申報, 1918.7.28-1919.2.8)の翻訳経路を確認し、その起点テキストとの比較を通じて翻訳の目的、方法、叙事構造の変容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る。閔泰瑗の『哀史』と、その起点テキストである黒岩涙香の『噫無情』を比較した結果、翻訳の方法では二人とも人名と地名の一部を自国化して翻訳することが分かった。叙事構造の変容では黒岩涙香の場合、序文で叙述した通り'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ためにジャン・ヴァルジャンと主な登場人物を中心にストーリーを縮約し、スピード感ある物語を展開しながら'社会批判'をも見逃さない。しかし閔泰瑗は黒岩涙香の日本語翻訳本から一部の内容を削除したり、新しい内容を加えてストーリーの伝達に中心を置いていると思われる。閔泰瑗のこのような翻訳方法や叙事構造の変容は社会的かつ政治的批判の不可能な植民地期、さらに出版物に対する統制がひどかった1910年代と言う背景があったからと推定できる。

論文分野：その他の日本語学

キーワード：閔泰瑗、レ・ミゼラブル、明治翻訳、黒岩涙香、噫無情

■ 윤경애 (尹京愛)

영남대학교 박사후연구원

yka9511@gmail.com

■ 投稿日：	2018년	3월	31일
■ 審査開始：	2018년	4월	2일
■ 審査完了：	2018년	5월	10일
■ 掲載確定：	2018년	5월	18일

<부록1> 메이지 시대와 다이쇼 시대에 번역된 일본어 『레 미제라블』

번호	번역작품명	번역자	출처	간행연도
1	寸断分裂/美人之腸	眉嶺山撫 (井上勤)	文学之花	明治20 (1887. 2)
2	落魄	渺茫居士 (長沢別天)	筆之力	明治22 (1889. 6)
3	配所の月	採菊散人	倭新聞	明治24 (1891.4-6.13)
4	山水家	古桐軒主人 (田山花袋)	千紫万紅 第八号	明治25 (1892.3.25)
5	ジャンバルジャン	原抱一庵	国民新聞	明治25(1892.5.8-8.28)
6	哀史の片鱗	無名氏 (原抱一庵)	自由新聞	明治26 (1893.1.15-2.2)
7	ABC組合	原抱一庵	少年園	明治27-28 (1894.11.3-1895.4.18)
8	噫浮世	福地桜痴	朝野新聞	明治28 (1895.11)
9	曉鐘	原抱一庵	太陽	明治29 (1896.4)
10	『水、冥』 篇	原抱一庵	文芸俱樂部 第二卷九編	明治29 (1896.7.25)
11	あわれ浮世	福地桜痴	太陽	明治30 (1897.1-4)
12	ABC組合 (単行本)	原抱一庵	内外出版協會	明治35 (1902.2)
13	噫無情	黒岩涙香	萬朝報	明治35-36 (1902.10.9-1903.8.22)
14	懺悔	山路愛山	民友社	明治36 (1903.2)
15	浮世之責	高安月郊	文芸界	明治36 (1903.6)
16	噫無情 (単行本 二冊)	黒岩涙香	扶桑堂	明治39 (1906)
17	恋の魔 (「哀史」より)	雨絃	文庫	明治39 (1906.4)
18	哀史 (レ・ミゼラブル)	徳田秋聲	新潮社	大正3 (1914)
19	ジャン・ヴァルジャン (世界名著物語第七編ユーゴー物語)	廣津和郎	実業之日本社	大正3 (1914)
20	哀史 (上, 中, 下)	戸川秋骨	国民文庫刊行会	大正4 (1915)
21	哀史物語	徳田秋聲	新潮社	大正7 (1918)
22	レ・ミゼラブル (전4권)	豊島與志雄	新潮社	大正7-8 (1918-1919)
23	レ・ミゼラブル (ユーゴー全集 第一, 二, 三卷)	ユーゴー全集 刊行會	ユーゴー全集刊行會 (冬夏社)	大正9 (1920)
24	レ・ミゼラブル (전5권)	宮原晃一郎	冬夏社	大正10 (1921)
25	此悲惨 (レ・ミゼラブル)	久米正雄	春陽堂	大正13 (1924)
26	レミゼラブル物語 (名作叢書第四編)	毛利與四郎	課外読物刊行會	大正14 (1925)
27	ジャンバルジャン (世界少年少女名著大系31)	久米舩一	金の星社	大正15 (1926)

<부록2> 민태원 「哀史」의 인명 번역

번호	헨리 윌리엄 영어 번역본	구로이와 루이코 일본어 번역본	민태원 한국어 번역본
1	Napoleon	奈翁 ^{ないうん}	나포레온, 나폴崙
2	Jean Valiean	戒瓦戒 ^{けいゐゐ}	장팔찬
3	Myriel	彌里耳 ^{みりえる}	미리엘
4	Geborand	—	차보란
5	Fantine	華子 ^{はなこ}	황이런
6	Cosette	小雪 ^{こゆき} (コセツト)	고설도
7	Thenardiers	手鳴田 ^{てなるだ}	티날쥬
8	Eponine	疣子 ^{いぼこ} (エポニン)	봉인
9	Azelma	痣子 ^{あざこ} (アゼルマ)	설미
10	Madeleine	斑井 ^{まだらぬ} (マデライン)	마대런
11	Javert	蛇兵太 ^{じやびやうた} (ジャベルト)	차보열
12	Fauchelevant	星部 ^{ほしべ}	홍술환
13	Villèle	ヴ井리ール	—
14	M. Ultime Fauchelevant	星部勇助 ^{ほしべゆうすけ}	홍윤환
15	Champmathieu	馬十郎 ^{うまじふらう}	심하슈
16	Baloup	バループ	싸루-푸
17	Brevet	武ラバット ^ぶ	부로마
18	Chenildieu	仙닐도어 ^せ	심유덕
19	Cochepaille	古シエ벨 ^こ	고쥬팔
20	Pontmercy	本田圓 ^{ほんだまるし}	홍명수
21	Louis XVIII	路易十八世	루이 십팔세
22	Havre	ハーブル	티부레
23	Marius	本田守安 ^{ほんだもりやす}	홍만서
24	Gillenormand	桐野家の老主人 ^{きりのけ}	길후작
25	Mabeuf	眞部 ^{まなべ}	마침지
26	Raphael	ラフエール	—
27	Goujon	ゴーヂョン	—
28	Venus	天津乙女 ^{あまつをとめ}	선녀
29	Fabantou	濱田 ^{はまだ}	하만국
30	Jondrette	長鳥 ^{ながどり}	라강환

31	Gavroche	さぶらう 三郎	—
32	Montparnasse	もんぱー 門八	몽팔이
33	Bertrand	ベルトラン	베루도란
34	Urbain Fabre	ウルビン、フアブル	윤만화
35	Lamarque	ラマルク	라마룩
36	Lafayette	ラ Fayette	라후엣트
37	Anjoulras	エンジラ	원지라
38	Grantaire	グランタ	구란타
39	Combeferre	コンパハ	권보하
40	Courfeyrac	ちかいへい 近平	ABC계원, 엇던친구
41	THENARD	なるだ 鳴田	날쥬

<부록3> 민태원 「哀史」의 지명 번역

번호	헨리 윌리엄 영어 번역본	구로이와 루이코 일본어 번역본	민태원 한국어 번역본
1	Waterloo	汪多樓, 水樓 ウヲタルー	와테로
2	Digne	ダイン(Digne)	데뉴
3	French	^{ふらんす} 佛國	불란서
4	Paris	^{ぱりー} 巴里	파리
5	Elba	エルバ	에루바
6	Cannes	カン(Canes)	캉
7	Alps	アルプス	알푸스
8	Chaffaut	シヤフラー	스호, 사호
9	Pontarlier	ポタリエ	폰다리엘
10	Toulon	ツーロン	쓰-론
11	Montreuil	モントリウル	몬도리울
12	Montfermeil	モントフアメール	문화리
13	Spain	^{すぱいん} 西班牙	-
14	London	^{えいこく} 英國	영국 「론돈」
15	Berlin	^{どいつ} 独逸	독일 「버루린」
16	Arras	アラス	아라스
17	Ailly-with-the High-Spire (Ailly-le-Haut Clocher)	クロチエ	구로셰
18	Faverolles	フエプロル	부리촌
29	Auvergne	オーバル	-
20	Hospital	ホピタル	로피탈
21	Lagny	ラグニー	구라니
22	(Choisy le Roi)	ロイ	-
23	Ouest (Rue de l'Ouest)	ドロス	도로쓰
24	Pontoise	ポンチス	폰지스
25	-	ポジラ	포지라
26	Vernon	ベルノン	란곡
27	Austerlitz	オストリツ	오스더리쓰
28	Italy	^{いたりや} 伊國	이탈리
29	Poland	^{ぽうらんど} 波國	파란
30	Dominique	ドミニク	도미닉
31	Plumet	ブルメー	불피
32	La Force	ラホース	-

33	England	英國 えいこく	영국
34	Homme-armée	アミー	아미
35	St. Denis	サン、デニス	텐이스, 산, 데니스
36	Chauverrie	シヨールリ	－
37	Verrerie	ベレリー	－
38	－	ノルマンデー	노루만데
39	America	米国 あめりか	미국
40	－	パナ子	－
41	－	ポンドゼナ	－